

타임폴리오 The Time 일반사모투자신탁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

2026.01

5000P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대한 불안

2026년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장

급격한 시장상승 다음 급격한 시장하락은 역사상 반복된 과학

구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시기	'01-'02	'02-'03	'04-'07	'07-'08	'09-'11	'11	'16-'18	'18-'20	'20-'21	'21-'22	'22-'24	'24-'25	'25-'26
기간(일)	210	351	1185	390	791	156	430	780	474	451	650	272	278
상승(하락)폭	91%	-40%	187%	-53%	119%	-25%	32%	-44%	127%	-35%	34%	-21%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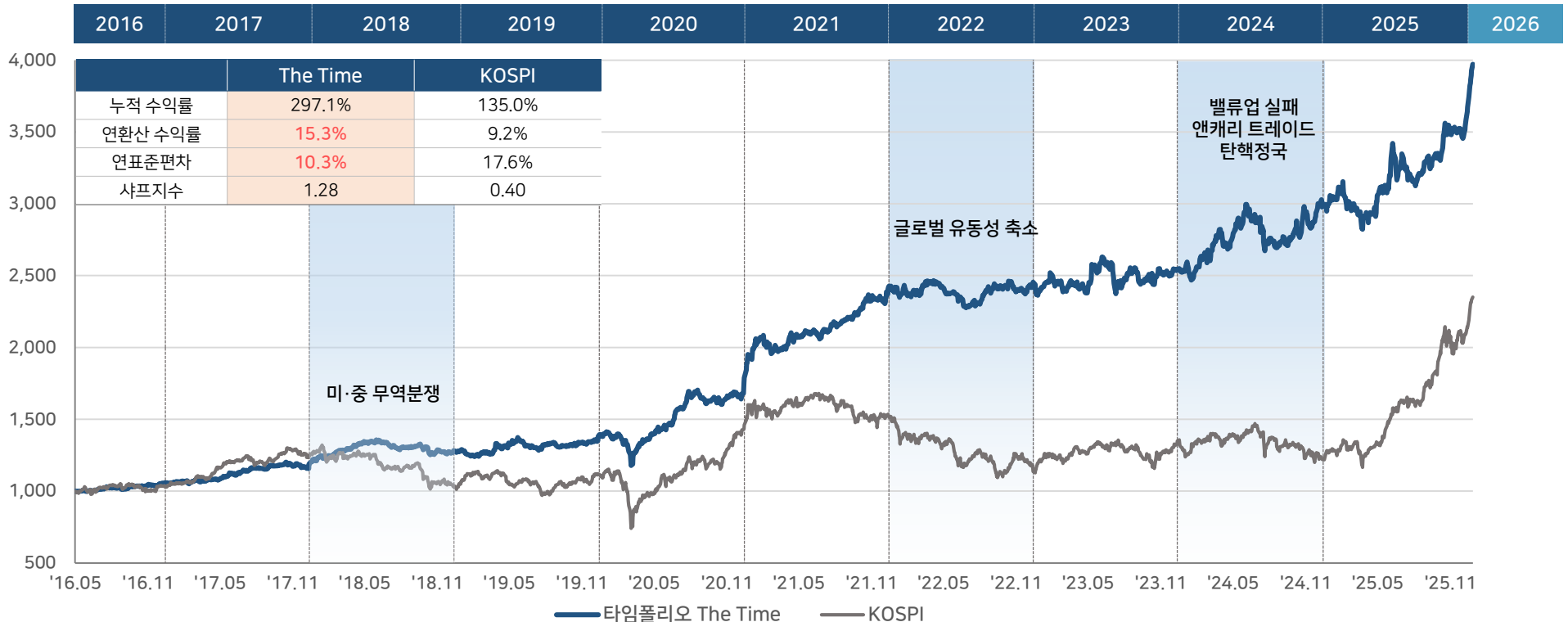


타임폴리오 헤지펀드 성과

타임폴리오 The Time 펀드의 설정이후 성과

“설정 이후 약 10년간의 운용기간 동안 YTD 기준 단 한번도 손실이 없었던 운용 성과”

연간 성과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누적	연평균
The Time	5.7%	12.7%	7.4%	8.9%	28.4%	35.5%	1.5%	3.2%	17.8%	22.9%	8.0%	297.1%	15.3%
KOSPI	3.0%	21.8%	-17.3%	7.7%	30.8%	3.6%	-24.9%	18.7%	-9.6%	75.6%	9.7%	135.0%	9.2%
AUM(억원)	5,909	11,338	12,731	9,542	7,696	17,457	19,530	16,105	16,208	20,361	21,17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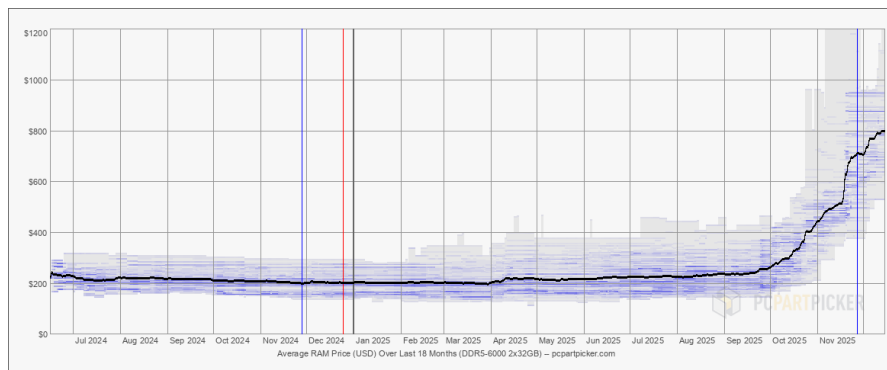
'26 시장의 방향

시장 상승을 예측하는 긍정적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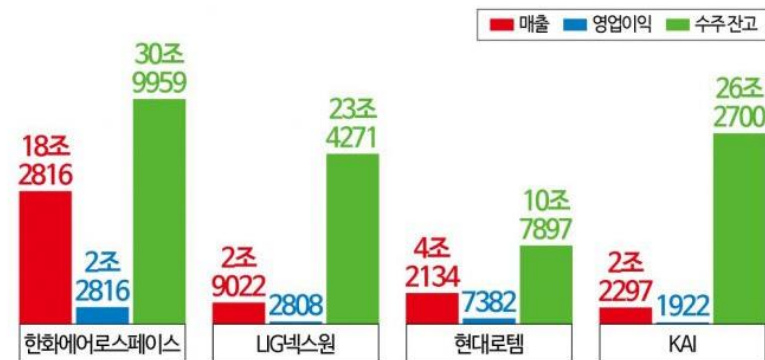
국내 시장과 주요 섹터

- 정부의 증시부양 의지는 이번 정권의 성공적인 운영을 결정하는 지상과제로 여전히 확고한 상황
- 메모리 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가격 폭등 및 HBM 납품 점유율 확대 등 반도체 슈퍼 사이클
- 방산, 조선 등 올해를 이끌었던 주요 수출기업들도 수주잔고 확대
- 높은 환율이 수출기업 실적에 유리한 국면
- 높은 주가 레벨을 실적에서 증명할 경우 단계적으로 코스피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수 있을 것
- 가파른 시장 전체 상승보다는 명확하게 실적에서 가시성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이어질 것

Dram 가격 변화 (DDR5 32GBx2)



K방산 4개사 누적 매출 및 수주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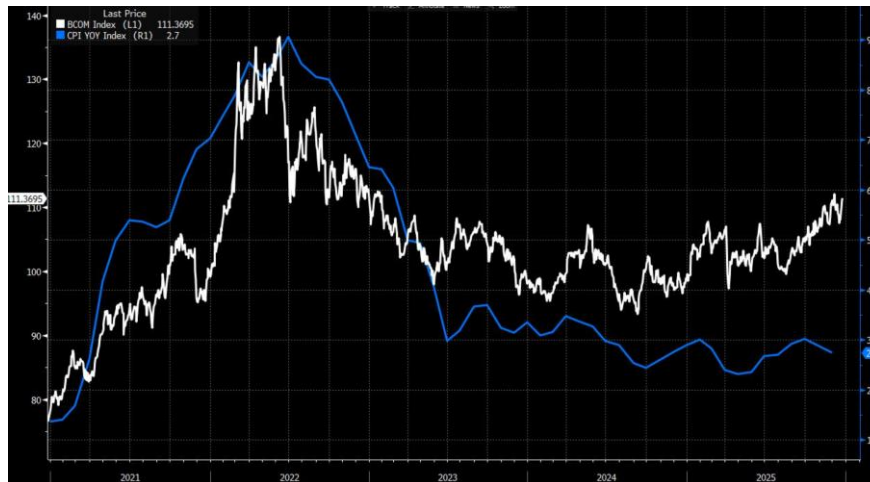
'26 시장의 방향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우려 :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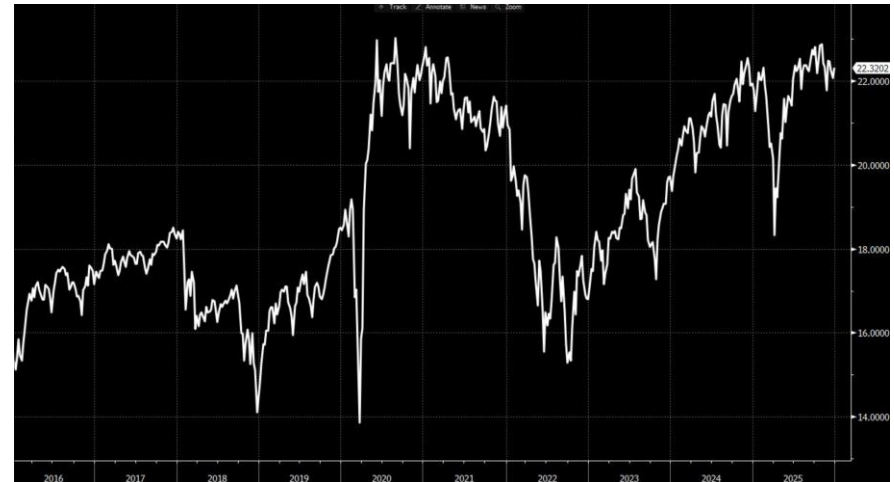
높은 지수 레벨과 불안한 유동성 환경

- 25년의 큰 상승 이후 26년을 맞이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물가지수는 낮은 레벨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금,은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26년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 26년 기준금리 2회 인하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미국 10년물 금리는 4%를 여전히 상회 중이며 채권 시장은 물가 지표와 달리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계 중
- 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나오거나 원자재발 가격 상승이 물가로 전이될 경우, 높은 증시 레벨에서 하방 변동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의 괴리



S&P500 PER



Why Timefolio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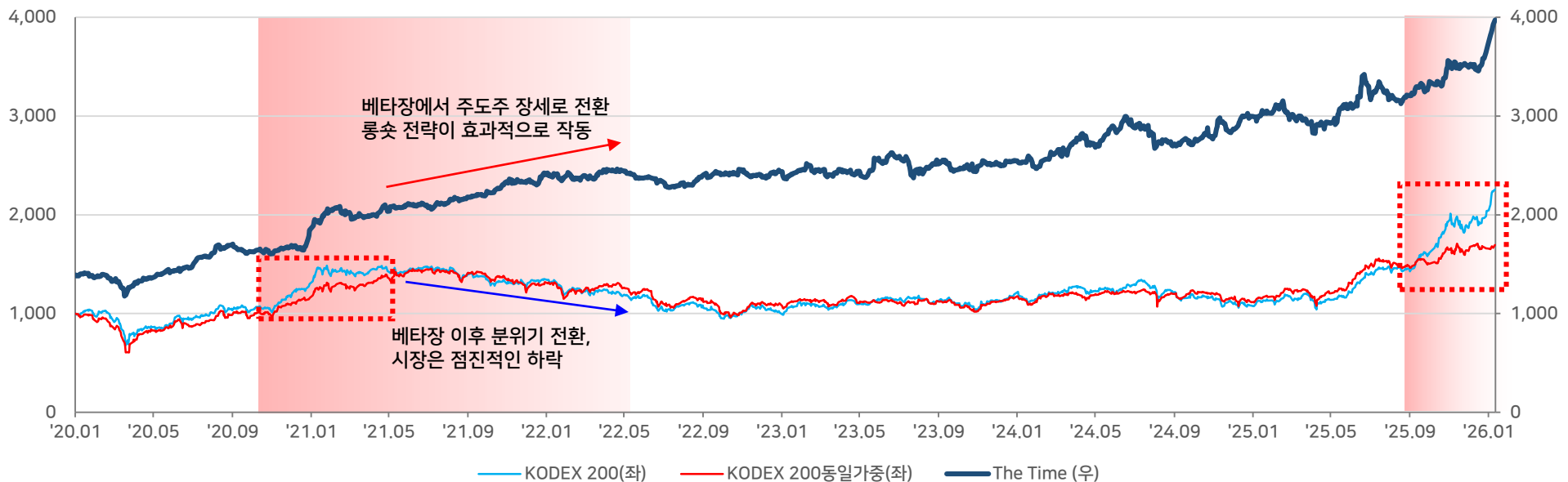
본격적인 주도주 장세의 전환

상승장 초기 단계 급격한 상승 이후 선별적인 주도주들이 나오는 지금이 롱숏의 무대

- 상승장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중기 단계에서는 지수 내 선별적인 주도주들이 나오면서 롱숏도 시장에 밀리지 않는 상승을 보이며 장기적으로 그 이상의 수익률 퍼포먼스 실현 가능
- 이후 쏠림이 강화되어 주도주와 주변주의 수익률 차이가 커지며 롱과 숏 모두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 올 것
- 이런 주도주 장세는 타임폴리오가 가장 잘 하는 시장임이 다시 한번 증명될 것

종목 쏠림 장세 이후 롱숏 성과

KOSPI에서 급격한 상승 이후 종목 쏠림이 나오면서 주도주 장세 전개, 롱숏 성과에 유리한 국면



절대수익이 선물하는 복리의 마법

장기투자의 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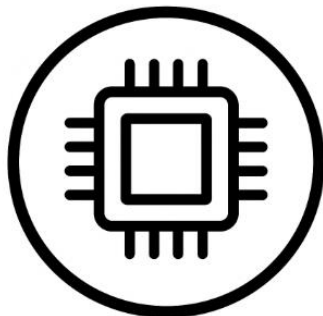
2016년에 마련한 10억의 노후자금을 한 달에 300만원 씩 꺼내 쓸 경우 지금 얼마가 남아있을까?

투자자산	예적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KOSPI	The Time
연 환산 수익률	2.0%	8.2%	14.5%
2025 현재 잔고	7.8억원	12.8억	21.9억
원금 차익	-2.2억	2.8억	11.9억
원금제외 수익률	-22%	28%	119%

같은 수익률이 반복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에는 얼마가 남아있을까?

투자자산	예적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KOSPI	The Time
연 환산 수익률	2.2%	8.2%	14.5%
2035 예상 잔고	5.4억원	17.7억	58.6억
원금 차익	-4.6억	7.7억	48.6억
원금제외 수익률	-46%	77%	486%

- 위에 투자 시뮬레이션은 지난 10년간 월간 300만원(이자소득세 15.4% 차감)을 차감한 월 성과를 원금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구원이 발표한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 297만원을 가정하여 300만원으로 산정.



메모리/ 기판

- 데이터센터를 필두로 신규서버, PC의 수요증가와 HBM전환 과정에서 레거시 공급제약과 낮아진 재고수준으로 인해 내년까지 강력한 메모리의 가격상승이 이뤄지는 상황
- 특히 추론용 AI 데이터센터 eSSD QLC 등 고용량 eSS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차세대 제품 HBF(고대역폭 낸드플래시)로 인해 중장기적인 낸드수요도 상향되어, 장기간 수급밸런스 침체에 있던 낸드 업황의 반전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상황
- AI시대 속 기판 밸류체인이 공급부족도 심화되는 중. 서버용 반도체의 전력소비량과 I/O핀수증가로 대형, 고다층 기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에 따라 MLB기판, CCL, 반도체기판, 유리섬유 등 관련된 기판 소재와 원재료까지 모멘텀이 확대되는 중. 이외 SOCAMM, GDDR7등 차세대 기판의 등장과 재고조정 이후 메모리 기판의 업사이클 속도

• **Top Picks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andisk, 두산, 삼성전기**



AI/전력

- AI 산업 성장세가 반도체와 인터넷 플랫폼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중
- GPT5 출시 이후 구글과 OpenAI의 경쟁 구도에 다시 한 번 변화가 생기는 중. 특히 구글 아이언우드 TPU v7은 추론전용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전력 대비 추론 성능이 높고 대규모 AI Agent운영이 가능해 구글 AI칩이 급격히 부각받는 중
-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관련된 밸류체인인 네트워크나 변압기 등에서도 효율적인 기술변환과 수요증대로 밸류체인에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바, 네트워크와 변압기, 전선 등 관련 업체들의 실적 성장세가 향후에도 가파를 것으로 예상됨
- AI의 발전과 함께 장기 전력 쇼티지의 강도는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전력 인프라에 대한 포트 노출도를 가져가야 한다고 판단. 이로 인해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에 적합한 원자력, 가스터빈에 더해 연료전지 등 차세대 전력 인프라 선호

• **Top Picks = Google, Broadcom, ASIC/Network companies, Bloom Energy**

Market Outlook

주요 섹터 전망



방산

-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단기 수주 부재로 하반기 방산 기업들 조정 중)
-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전 이후로도 러시아와 유럽의 긴장감은 유효, 유럽의 재무장은 이제부터 시작, 한국은 방산에서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며 중요한 방산 납품의 협력사로 자리
- 내년부터 중동 모멘텀 본격화로 수주 잔고가 한번 더 레벨업 될 경우 랠리 재현 기대
- **Top Picks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바이오

-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의약품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전반적인 섹터에 훈풍이 부는 중이며 특히 최근 정부의 코스닥 부양 의지와 함께 코스닥 상위에 포진된 바이오 섹터 각광
- 특히 국내 바이오사들은 빅파마로 대규모의 기술이전과 공동개발 계약 체결 등 과거 대비 잦은 빈도로 큰 규모의 L/O를 내며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인증이 인정 받는 중
- 1월 지투지바이오/베링거인겔하임, 2월 올릭스/릴리 MASH, 3월 알테오젠/AZ, 4월 에이비엘바이오/GSK BBB, 6월 올릭스/로레알, 10월 에임드바이오/베링거인겔하임, 11월 에이비엘바이오/일라이릴리 등 빅파마 L/O 외 추가적인 국내업체들의 연말~26Y L/O, 계약확장, 임상결과 기대가 기대되는 상황
- **Top Picks =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코오롱티슈진, 오스코텍, 올릭스**